

## 우리나라 經濟

현재 우리나라는 근래에 유래가 없는 심한 經濟的인 難局을 겪고 있다. 즉 國際收支의 惡化, 物價의 上昇 및 經濟成長의 鈍化라는 세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겹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60年代 초엽 이래 근 20年동안 높은 經濟成長을 보여 여러 發展途上國들의 선망의 對象이 되어왔던 韓國經濟가 갑자기 크나큰 시련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問題에 관한 한 이런 難局이 모두 우연한 要因에 의해서만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책임을 外部要因인 最近의 石油價格引上에만 돌리고 있다. 물론 石油價格의 引上이 現在의 經濟難局에 직접적인 要因이 되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石油價格의 引上이나 石油의 供給不足문제는 어제, 오늘 갑자기 밀어닥친 것이 아니고, 이미 1973年의 1次石油波動 때에 충분히 알려졌던 터이므로 그동안 우리가 이에 잘 대처해 왔었다면 현재 겪고 있는 經濟的인 難局도 그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經濟難局의 직접적인 原因은 최근에 일어난 2次 石油



鄭 暢 泳  
(延世大學校 教授 · 經濟學)

# 難局의 타개책

波動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나, 이보다 더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이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石油價格의 상승과 그 影響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현재의 經濟難局의 기본적인 원인을 2次 石油波動에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가 있을 것이다. 經濟問題가 특히 그러하나 모든 部面에 걸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우연한 要因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다. 항상 충분한 內在的인 理由가 있고 이들이 누적되면서 必然的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經濟難局에 국한시켜 얘기한다면 현재의 難局의 基本的原因은 과거 오랫동안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이 外部要因인 2次 石油波動이 도화선이 되어 밖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經濟的인 難局의 基本原因은 무엇인가? 첫째는 과거 20年동안 經濟成長과 經濟安定 중에서 經濟成長을 우선시함으로써 安定된 基盤위에서 國民經濟가 持續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무너뜨렸

다는 것이다. 政策的으로 항상 成長을 우선시한 것은 당장에는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長期的으로는 安定基盤을 잃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였다.

國內貯蓄이 부족하여 投資財源의 확보를 위해 많은 外資導入을 하게 된 것이나, 國際競爭力이 弱化되어 國際收支의 赤字幅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것의 基本原因은 사실상 物價의 급속한 上昇, 즉 經濟安定을 이룩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아마도 과거 20年 동안에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經濟安定이 없이는 長期的으로 한 나라의 持續的인 經濟成長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經濟的인 難局의 두번째 基本原因은 모든 經濟政策의 집행이 目標值의 달성만을 위주로 하는 外樣의 成長에 치중하였고 內實을 기하는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實例를 輸出에서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언제까지 輸出額 몇 億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輸出의 構成이나 採算性에 대하여는 注目하지 않고 目標值의 달성에만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金融이나 租稅面에서 아무리 큰 지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技術



的인 優位性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히 低賃金만을 무기로 행해지는 輸出이란 얼마 안 가서 곧 限界에 부딪치게 된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量的인 目標值의 달성에만 치중하고 輸出產品의 技術進歩를 소홀히 다룬 결과로 支援이 없이는 제혼자 힘으로 輸出伸張이 될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經濟的인 難局의 세번째 基本原因은 과거 20年 동안의 經濟政策이 內需産業보다는 輸出産業을, 中小企業보다는 大企業을, 農村보다는 都市를, 庶民 一般보다는 高所得層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各部門이 均衡的으로 發展하는 것을 저해하였다. 그 결과로 經濟部門 사이의 不均衡이 深化되고 많은 副作用을 초래하게 되었다.

우선 內需産業과 輸出産業에 대하여 보자. 1960年代 초엽에 우리가 경제발전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國內市場의 협소로 불가피하게 海外市場을 대상으로하는 수출위주의 對外指向的인 經濟發展戰略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時間의 경과와 더불어 國民所得은 급속하게 增加하였고 그 결과로 國內市場의 규모도 最近에 와서는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國際的인 여건도 1960年代 초엽에 우리가 發展戰略을 처음 세울 때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資源問題는 최소한 앞으로 20餘年동안은 그대로 존속할 것이며 保護貿易主義의 추세도 상당한 期間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國內外的인 興件이 變化하면 經

濟政策의 優先順位도 이에 맞추어 신축성있게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經濟的인 問題에 관한 한 어떤 目標에 永久하게 집착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몇년전부터 이미 추진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國內外的인 興件의 變化를 감안하여 輸出을 促進하면서도 同時에 같은 比重을 가지고 內需基盤을 다지는 作業이었다. 窮極的으로 볼 때에도 한 나라가 利益을 보는 것은 輸出에 의해서가 아니고 輸入에 의해서 이므로 輸出 그 자체가 目標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認識할 필요가 있다.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中小企業은 우선 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勞動集約的인 生産方法을 사용하므로 雇傭增大를 위한 中小企業의 育成은 중요한 政策的인 意義를 지닌다. 또 衡平의 增進을 위해서도 中小企業의 育成은 중요한 뜻을 가진다. 大企業에 대해서는 規模의 經濟를 理由로 일방적인 支援을 해왔으나 國內市場의 협소로 獨寡占化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상당한 不作用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農村보다 都市를 優先視해온 정책도 長期的으로 볼 때는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것이었다. 충분한 雇傭機會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과도한 都市集中現象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先進國의 工業化過程과는 달리 都市의 工業部門이 資本集約的인 生産技術을 사용하여



생산을 함으로써 農村人口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雇傭機會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농촌 그 자체가 勞動力을 흡수할 수 있도록 綜合的인 農村發展戰略이 실천에 옮겨져야만 할 것이다.

經濟發展의 혜택이 庶民一般보다는 高所得層의 厚生을 상대적으로 더욱 증대시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經濟的인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이는 相對所得의 隔差를 늘림으로써 社會全體의 貯蓄을 줄이고 消費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所得階層 사이의 展示效果의 作用은 종래의 주장인 所得分配가 不公平해야 貯蓄이 增加한다는 假說과는 달리 오히려 階層사이의 所得隔差가 확대되면 저축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재의 經濟的인 難局의 基本原因은 經濟安定의 輕視, 目標值 達成 위주의 量的인 成長政策 및 國民經濟의 主要部門사이의 不均衡的인 發展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이의 打開策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현재의 經濟的인 難局의 基本的인 原因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충분히 나타내졌다. 즉 經濟의 安定基盤을 굳건하게 다짐으로써 持續的인 經濟成長의 터전을 닦아야 한다는 것, 둘째는 外樣보다는 經濟의 內實을 이룩하도록 經濟政策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國民經濟

의 主要部門이 均衡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위의 세가지 課題는 우리가 1973년에 1次 石油波動에 부딪혔을 때부터 이미 착실하게 추진되어 왔어야 할 것들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곧 우리가 이번 중요한 失機를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지나간 일을 후회만 하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겪고 있는 難局은 반드시 우리에게 뼈저린 教訓을 안겨주고 끝이 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 經濟는 결국 그 나라를 構成하고 있는 國民들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곧 經濟란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떤 나라가 잘살고 못사는 것은 모두가 그 나라 國民들에 달려있는 것이다. 自然資源도 중요하고 技術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經濟에 중요한 것은 사람 자신이다.

단순한 眞理는 家計는 消費節約에 철저하고, 政府는 豫算의 效率的인 사용에 투철하며, 企業은 原價를 낮추고 技術革新을 이룩하는데 헌신할 때 한 나라 經濟도 번영할 것이다. 즉 모든 經濟主体가 철두철미하게 「經濟하려는 意志」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그 나라는 富強한 나라가 될 것이다. 賢明한 國民은 중요한 실수를 두번 다시 하지 않는다고 볼 때 이번의 經濟難局이 모든 經濟主体에게 크나큰 教訓으로 새겨져야만 할 것이다.